

Report on the Dispatch of Korea

In Nagasaki and Hiroshima, many Koreans as well as Japanese were victimized by the atomic bombing back in 1945.

At that time, many boys and girls were brought to Japan without their will to fill the labor shortage during the war. Japanese authorities drafted them with rosy promise such as opportunities of study or jobs, which turned out to be fraud, most of them ended up with slavery workers.

In addition, Koreans who came like that were forced to change their names to Japanese names during the war. As a result, they had to live as Japanese, so we don't know the number of workers clearly at that time.

However, many Koreans were seriously injured or died when the atomic bomb was dropped because a sign in front of the air-raid shelter said "Koreans do not come in", "Run away to the mountains when the bomb was dropped." Koreans were significantly vulnerable to bombing as they were not even allowed to hide in the air-raid shelters, thus they had no choice to just run away, which led to tremendous more victims.

At the same time, we should not forget that many workers in coal mines lost their lives due to miserable working conditions, hunger or lack of medical treatment. After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Nagasaki, most of the injured people suffered from severe skin burns, whose wound were only treated with plant leaves due to lack of medications.

The people who returned to Korea after the war did not get better either.

The Korean War broke out in the midst of a lack of sufficient treatment, and the body injured by radiation could not get a job and was losing hope of living financially. (6.25)

They told me about their pain, which all the dreams that they wanted to be happy with their family hopelessly disappeared.

I visited the Welfare Hall, Japanese Forced Labor History Museum, and the United Nations Base.

If you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atomic bomb survivors, everyone would say the same thing. It's about creating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Through this visit to Korea, I learned and thought a lot about the truth that a single atomic bomb brought. That moment has broken the hearts and minds of them for 70 years. I have a mission to let the world know the truth.

My first plan to achieve the mission is to get a lot of people to sign (make placards???), and use them for anti atomic bomb protest activity at the league headquarters in Geneva.

If I get the opportun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and announce the event, I will try to tell more people about their tragic stories that I have seen and heard in person. And through the Internet, I will post

the report of this dispatch in English. I want to advertise about high school peace ambassador activities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In addition, I will meet again high school students who built close ties in Korea on the atomic bomb day of Nagasaki and Hiroshima to deliver our message to the peace ambassadors and world representatives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to many Japanese who attend the scene with the aim of nuclear dismantlement and world peace.

I am ending this report by saying in my mind, "Small powers are not without power." And I promise to actively engage in more peace activities in the future."

IMADA SUZUKA, (Nagasaki)

한국 파견 보고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원폭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끌려온 소년과 소녀들이 수많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가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또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선생님들에게 속아서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온 한국인들은 전쟁중에 억지로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일본인으로 살아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당시의 노동자들의 숫자가 확실히 파악이 되어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일본으로 바꾸었어도 방공호앞에는 “한국인은 들어오지 마라. 폭탄이 떨어질때는 산으로 도망쳐라” 하고 뜻말이 써 있었기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때 많은 한국인들은 크게 상처를 입거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동시에 탄광에서의 노동자들은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많은 질병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에 그들은 심한 화상을 입었고 약이 없어서 야채나 식물을 잘라 찌어내 그것으로 상처에 발라 아픔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은 역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에 방사능의 영향으로 다친 몸으로는 제대로 직업을 갖을 수도 없어서 금전적으로 살 희망을 잃고 있는 와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 25)

가족들과의 행복해지고 싶었던 모든 꿈이 절망적으로 사라진 그들의 아픔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원폭복지회관, 일제강제노동역사박물관, 국제연합기지등을 방문했습니다.

재한피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핵이 없는세상을 만들어야한다” 입니다.

이번 한국방문을 통해 저는 많은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방의 원자폭탄이 갖고오는 [진실]을 .. 그 한순간이 오늘까지의 70 년동안을 얼마나 많은 피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달래지못하고 괴롭게 하였는지를 그 [현실]을 세계에 발신해야한다는 사명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서명을 받아내는 것]

[그 서명을 제네바에 있는 연맹 본부에 전달하는것]

평화집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그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고등학생 1 만명 서명활동이나 고등학생 평화대사의 활동을 이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번 한국파견의 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올릴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친목을 돈독히 쌓은 고등학생들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의 날]에 다시 만나 전국의 평화대사들과 그날 그 장소에 참여하는 많은 일본인들과 세계의 각각 대표자들에게 [핵의 폐기와 세계의 평화를 목표로] 의 우리의 멧세지를 전하겠습니다.

[미력이지만 무력이 아니다] 힘은 작아도 힘이 없는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마음에 담고 앞으로도 더 많은 평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다짐하며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IMADA SUZUKA (나카사키)